

- 信 바르게 믿고
- 解 바르게 알고
- 行 바르게 실천하고
- 證 바르게 깨닫자



金剛會報



金剛學院 <http://www.geumgang.org> E-mail: keumgang-sw@hanmail.net 불기2559년(서기2015년) 7월 25일 (토요일) [제116호]

발행처 :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선원 / 발행인 : 혜거스님(안동수) / 발행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82길 11 삼우빌딩 405호(135-243) / 편집 : 금강선원 편집부 / TEL : 445-8484 FAX : 445-8043 / 등록번호 : 서울라-10888



백중 7일 지장기도 입재
8월 22일(토) 오전 10시 30분

우란분절을 맞아 금강선원에서는 오는 8월 22일(토) 오전 10시 30분 대법당에서 선망 부모와 조상들의 업장소멸과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백중기도를 입재합니다. 우란분절은 부처님 당시 목련존자가 지옥에 있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하안거를 끝낸 스님들께 공양

을 올린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목련존자의 지극한 기도공덕으로 자신의 어머니뿐 아니라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던 다른 영가들도 같이 구제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육도중생이 나의 부모와 형제 아님이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효심이 바로 불심이며

일체중생에게 베푸는 보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기도하는 자신의 수행인 동시에 모든 생명에 대한 대자비심을 실천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다함께 동참하시어 업장소멸의 큰 서원 이루시길 바랍니다.

2016학년도 수능 백일기도 입재

8월 4일(화) 오전 9시 20분

오는 8월 4일(화) 오전 9시 20분 6층 기도법당에서 2016학년도 수능 백일기도를 입재합니다. 매일 오전 5시와 9시 20분 하루 두 번 청비스님의 기도 집전으로 100일 동안 수행생의 건강과 학업성취를 발원하고 간절한 마

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는 부처님께 원을 이루게 해 달라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앞에서 원을 세우고 스스로 재계하여 계를 지키고 수행함으로써 흐트러진 마음을 청정하고 자비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

는 것입니다.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수행생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뿐 아니라 인연 있는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려연수교육 『임제록』

8월 20일(목) 오후 6시

금강선원에서는 8월 20일(목) 부터 승려 연수교육이 시작됩니다. 2014년 조계종 교육인증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이래 두번째로 진행되는 교육프로그램으로서, 이번 강의는 가장 뛰어난 선수행의 지침서인 당나라 임제선사의 설법집 『임제록』을 교재로 9월 24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6회로 진행됩니다. 혜거 큰스님의 강의에 많은 스님들의 참석 바랍니다. ▶문의 : 금강선원 사무실 (02-445-8484) ▶수강료 : 15만원

제41기 선하불교대학 모집

선하불교대학은 초발심 불자들을 위한 입문과정으로, 불교의 기초교리와 불교사상, 기본의전 등을 배우는 초급 과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불교가 수행의 종교임을 깨닫게 되고 불교에 대해 보다 깊이 공부하고 이해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가을부터 진행되는 선하불교대학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제27기 기초참선반 모집

금강선원 기초참선반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상반기는 오후 3시, 하반기는 오후 7시로 나누어 진행되는 참선프로그램입니다. 참선은 작은 방석 하나에 자신을 묶는 훈련입니다. 이탈하지 않는 훈련을 통해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도록 연습하는 과정입니다. 참선문에 이르는 기초과정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5 제1차 명사 초청 강연회 및 판소리 공연

- ▶ 일시 : 7월 29일(수) 오후 14:00 ~ 16:30
- ▶ 장소 : 탄허기념박물관 보광명전
- ◆1부: 강연회
 - 강연주제 : 동북아시아의 불경번역을 통한 교류 및 역사적 의의
 - 강사 : 최미경(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2부: 판소리 공연
 - 채수정(소리), 박근영(고수)

을미년 백중 7일 지장기도 봉행

금강선원에서는 우란분절(음. 7월 15일)을 맞이하여 8월 22일부터 8월 28일까지 백중 7일 지장기도를 봉행합니다. 선망부모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진정한 효심과 공덕의 시간이 될 이번 지장기도에 많은 불자님들의 동참바랍니다.

- ▶ 입재 : 2015년 8월 22일(토) 오전 10시 30분
- ▶ 회향 : 2015년 8월 28일(금) 오전 10시 30분
- ▶ 기도비 : 10만원

제26기 기초참선반 수료식

4개월간의 참선 기초과정을 마친 제26기 기초참선반 수료식이 지난 6월 29일(월) 오후 3시 대법당에서 있었습니다.

혜거 큰스님께서는 상장 수여 및 상당인증서를 수여하신 후 수료식 법문에서 “가는 곳마다 그 자리에서 주인이 되라[수처자주]”고 말씀하시면서, 방석 하나에 나를 묶어놓고 이탈하지 않는 훈련을 하는 것이 참선이며, 이탈하지 않는 것이 인격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매일 1시간씩 참선하는 훈련이 가장 훌륭한 스승임을 잊지 말고 기초과정을 수료한 후에도 수행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제26기 성인 기초참선반 단체 사진

청소년 명상, 학부모오리엔테이션

지난 7월 4일(토) 오후 2시 대법당에서 명상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명상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청소년 명상의 목적, 금강선원 청소년 참선반의 성과 및 뇌과학적 연구 결과 등 명상을 통한 청소년들의 인지적 부분의 변화에 대해 지도법사(광명장)의 설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참선을 통한 뇌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며

제40기 선하불교대학 졸업식

지난 7월 6일(월) 오전 10시 30분 대법당에서 선하불교대학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4개월 기간 동안 불교의 기본 교리와 사상을 공부하고, 진정한 수행불교로서의 배움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특별한 과정이었습니다.

졸업생 대표로 제40기 회장(유혜자)의 답사와 시상식에 이어 진행된

졸업법문에서 혜거 큰스님께서는 “삶을 멀리 보고 준비해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불교 공부에 이 과정을 기반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졸업생들에게 상장을 수여하며

상반기 수계식 봉행

상반기 수계식이 7월 5일(일) 오후 1시 대법당에서 봉행되었습니다. 수계자와 가족, 도반들이 함께 한 가운데 수계식은 식순에 따라 여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혜거 큰스님께서는 수계법문에서 “오계를 지키면 스스로가 청정해지고 계율을 지키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수계자”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수계자들은 혜거 큰스님으로부터 계첩과 범명을 받아 지니고 진정한 불자로 거듭난 이날을 계기로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계첩과 범명을 받는 수계자

금강경 강송대회 수상자 모임 발족식

금강경 강송대회 역대 수상자들의 모임인 ‘금강경강송회’ 발족식이 지난 7월 5일(일) 오후 2시 6층 기도법당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총회는 역대 수상자 70명 중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강경 강송회 발족식 및 회장단 선출, 금강경 강송대회 활성화와 금강경 독송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식순에 따라 진행된 축사에서 혜거 큰스님께서는 금강경 삼매 체험을 강조하시며, 금강경 강송대회가 전국적인 문화행사가 되도록 수상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더불어 맨 앞에서 선도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어진 토론시간에서는 문광스님(탄허기념박물관 교육실장), 대각심(금강선원 사무장), 보리성(제5회 금강경강송대회 운영위원장) 및 금강경 강송대회 운영위원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금강경 강송대회 활성화 방안 및 금강경 독송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조순로(제2회 금강경강송대회 대상) 회장을 중심으로 임원진 및 회원들이 결집하여 제5회 금강경 강송대회가 보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로 원만히 이루어지고 나아가 금강경 독송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금강경강송회 총회 중에서

제10기 청소년 기초참선반 개강

지난 7월 18일(토) 오후 2시 탄허기념박물관에서 제10기 청소년 기초참선반이 개강되었습니다.

삼귀의, 반야심경에 이어 진행된 개강법문에서 혜거 큰스님께서는, 바르게 앉는 자세와 시선 집중하는 훈련을 통해 자신을 바로 세워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명상 훈련에 최선을 다 해주길 당부하셨습니다.

이날 개강식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참석한 가운데, 각 분야별 지도법사들의 지도에 따라 명상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제3기 청소년 10분 집중명상 지도자 과정에 있는 연수생들과의 조별 모임으로 청소년 기초참선반의 첫 날 일정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청소년 기초참선반은 오는 9월 6일(일)까지 8주 15회기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혜거 큰스님의 법문을 듣는 청소년들

박물관 단신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서울지역단 분야별 연수

7월11일(토) 오전 10시 탄허기념박물관 보광명전에서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서울지역단 분야별 연수가 진행되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포교원 특강에 이어 박물관 관장님이신 혜거 큰스님의 법문이 진행되었고, 오후에는 분야별 연수가 진행되었습니다.



길위의 인문학 ‘응답하라1959’

7월 14일 부터 15일까지 종암중학교 2학년 학생들(30명)과 송례중학교 2학년 학생들(30명)의 길위의 인문학 ‘응답하라 1959’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메르스 확산 방지의 일환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일시 중지한 후 메르스의 추가 발병 및 확산 위험이 줄어들면 7월부터 다시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7월 14일 종암중학교 학생들과 15일 송례중학교 학생들 모두 뇌를 일깨우는 명상수업을 진행한 후 박물관 투어를 하면서 아이패드를 이용해 박물관 곳곳의 사진을 찍은 후 가장 활발하게 사진을 꾸민 학생들이 기념품을 받았습니다.

문화예술 전문인력 향상과정 컨소시엄 체결

박물관은 ‘문화예술 전문인력 향상’을 위해 ‘국가인적 자원개발 컨소시엄’ 2015년 운영기관인 ‘예술의 전당’ 과 문화예술 전문인력 향상과정 컨소시엄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컨소시엄은 국비 지원으로 전액 무료로 실시되며 컨소시엄을 맺은 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전시기획과, 문화기술 두 분야로 교육이 진행되며 8월 25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많은 것을 보고 배워 앞으로 박물관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 문 (序文)

『원각경 서문』 강설 ④



서문은 어떤 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규봉스님의 원각경 서문은 특히 난해한 면이 있어서 여러분이 어려워하실 수 있으나 꾸준히 인내하시면서 보시면 한문 공부의 깊어지고 마음공부를 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합니다. 지금 선원에서 하는 공부는 좀 더 지혜롭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살면서 부처님께 다가가려는, 부처가 되려는 공부이니 항상 마음을 모아 끊임없이 수행하고 아울러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보살행을 해야 합니다.

공부가 된 뒤에는 아는 것을 자랑할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많은 보시와 봉사를 하고 그런 뒤에는 그 보시행 조차도 염두에 두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더위가 깊어질 때 공부도 깊어질 수 있도록 더위를 친구 삼아서 열심히 해봅시다.

大矣哉라 萬法資始也여
萬法虛僞하야 緣會而生이오
生法이 本無하나 一切唯識이라.
크도다. 만법이 이를 힘입어 비롯함이며!
만법은 거짓이라 회합으로 인하여 생하고
생한 법은 본래 무이기에 일체가 유식이라.

대의재大矣哉라. 위대하도다! 크도다!
무엇이 크고 위대할까요? 마음입니다.
이 글 속의 달도 여의주도 모두 마음을

가리킵니다.
만법자시야萬法資始也여. 만법은 이를 바탕으로 하여 시작함이며. 만법은 마음이 근원이 되어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생각이 없거나 어떤 경계에 부딪히지 않으면 좋고 나쁨이나 싫고 좋음이 생기지 않겠지요.

만법허위萬法虛僞하야 연회이생緣會而生이오. 만법은 거짓이니 인연이 모여서 생기고, 만법이 허위하다는 것은 본래는 없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작용으로, 이런 저런 만 가지 상이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본래의 마음만이 진실한 것입니다.

만법은 지수화풍이나 금목수화토가 모이고 반연하면서 작용이 생겨나고 만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확대해보면 사람은 절대 홀로 살 수가 없고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데 이때 독선이나 아집은 최대의 적입니다. 서로 배려하고 화합해야 잘 살 수 있는 게 진리입니다. 우리 몸도 각 기관이 서로를 인정하고 양보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한 집안이나 나라도 분쟁이 없어야 편안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인연이 모여서 새 인연이 생기고 그 인연으로 다른 인연이 또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생법生法이 본무本無하나 일체유식一切唯識이라. 생겨나는 법은 본래 없으나 모든 것은 오로지 유식, 마음뿐이다. 생겨나는 모든 법이 본래 있던 게 아니고 어떤 경계를 만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작용의 반연으로 마음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이 마음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이 글은 위대하도다. 만법의 근본이고 처음이며! 만법은 허위인데 인연으로 만나서 생기고, 생기는 법은 본래 무이기에

모든 것은 오직 마음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識은 如幻夢이나 但是一心이니
心은 寂而知를 目之圓覺이라.

유식은 환몽과 같으나 하나의 마음이니
일심은 고요하면서도 지각이 있는 것을 원각이라고 한다.

식識은 여환몽如幻夢이나 단시일심但是一心이니. 식은 윗글의 유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안다는 것은 마치 꿈이고 허깨비와 같으니 단지 이것은 일심뿐이다.

심心은 적이지寂而知를 목지원각目之圓覺이라. 심 즉 일심은 고요하면서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으니 이것을 이룸하여 원각이라고 한다. 아무것도 먹은 마음이 없는 자리를 적寂이라고 하고, 이 자리는 곧 탐진치가 멈춰진 자리를 말합니다. 이 자리에서 만법을 통달하는 지각이 열리는 데 그것을 지목하여 원각이라고 한다. 곧 적이지가 된 마음을 원각이라 한다.

정리해보면, 안다는 것은 마치 헛된 꿈과 같으나 단지 이것은 한 마음뿐이니, 이 일심은 고요하면서도 만법을 아니 이것을 원각이라고 한다.

彌滿淸淨하야 中不容也일세 故로
德用이 無邊하나 皆同一性이니

청정함이 가득하여 그 가운데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기에 덕용이 끝없으나 모두 하나의 성성이요.

미만청정彌滿淸淨하야 중불용야中不容也일세 故로. 청정한 마음이 널리 가득하여 그 가운데에서는 어느 것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동해바다에 아무리 더러운 것을 넣어도 더럽혀지지 않은 것처럼 청정한 마음에는 어떤 오염된 상황이나 작용이 일어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청정하다.

덕용德用이 무변無邊하나 개동일성皆

同一性이니. 덕의 작용은 끝이 없으나 모두가 똑같이 하나의 성품이니. 세상살이는 덕용으로 살아가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무덕자는 욕심을 챙기기 바쁘고 시비만 가리기 때문에 자신도 괴롭고 주변사람에게도 괴로움을 줄 뿐입니다. 청정한 사람은 일심으로 끝없이 덕용하니, 우리도 본래 가지고 있는 덕을 활용하면서 잘 살아야겠습니다.

위 문장은, 원각은 두루 널리 청정하여 그 가운데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덕의 작용은 끝이 없으나 모두가 똑같이 하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性이 起爲相이라 境智가 歷然하며
相이 得性融이라 身心이 廓爾하니

성에서 일어나 상이 되고 경계와 지혜가 뚜렷하며 상이 성과 원융하여 몸과 마음이 드넓으니

성성이 기위상起爲相이라 경지境智가 역연歷然하며. 일념이 일어나면 바로 상이 되는지라 경계와 지혜가 뚜렷하며. 달마대사 육조스님이 똑같이 기심즉망起心即妄 심생즉상心生即相이라고 하셨습니다. 상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일념불생一念不生일 때가 일심인 것입니다. 성은 내 안에 있는 마음이고 상은 내 밖에 있는 만물입니다. 경계의 지혜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아는 지혜로, 경계마다 지혜가 작용하면 실수가 없고 욕심이 발동하면 지혜와는 멀어지게 됩니다. 계산된 마음은 욕심을 냈기 때문에 결과가 나쁘게 되지요.

상相이 득성용得性融이라 신심身心이 확이廓爾하니. 상과 성이 하나가 되니 몸과 마음이 확 트이더라. 나와 남이 원만히 화합하니 모든 것이 거침이 없고 막힘이 없더라. 즉, 일념이 일어나 만물이 생기고 경계와 지혜가 분명하며, 만물이 본성과 원융하니 몸과 마음이 거침이 없더라.

의료광고 의료광고심의필 제 141212-중-66396호

아이리움안과의원
강남센터빌딩 7층

강남역 2번 출구 지하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료내용

백내장 수술

노안교정

라식·라섹 수술

렌즈삽입술

보여주는 안과

EYE REUM 아이리움안과의원

아이리움안과의원 과 상담하세요.

상담·예약 | 02)3420-202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8 (역삼동 825-13) 강남센터빌딩 7층 아이리움안과
진료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금강경인가?



문광 | 탄허기념박물관 연구실장

“ 사상四相 은 결국 아상我相으로 수렴되며 요즘 같이 아상이 극으로 치달리는 자기 중심적인 말법시대에 가장 필요한 경전은 바로 금강경이다. ”

우리 조계종의 종헌 종법에는 소의경전이 ‘금강경’과 ‘전등법어’라고 되어 있다. 팔만대장경이라 일컬어지는 방대한 경전들 가운데 유독 금강경이 소의경전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더군다나 조계종은 선종禪宗을 표방하는데 어떤 연유로 금강경이 선종을 대표하는 경전이 될 수 있었을까? ‘왜 금강경인가’ 하는 의문은 공부를 깊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빠져드는 의문거리가 아닐 수 없다.

최근 헤거 큰스님이 불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에 관해 명쾌하게 설명하신 내용이 있어 먼저 소개할까 한다. 큰스님께서선 전통 강원에서 스님들의 경전교육을 위해 시설해 놓은 사교과목四教科目인 금강경, 기신론, 원각경, 능엄경은 보면 불수록 참으로 잘 짜인 교과과정이라고 하셨다. 대장경에 수많은 경전들이 있지만 이 사교과목처럼 불교교리를 명쾌하게 잘 설명해놓은 경전은 드물다. 짜임새 있게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며 요지가 분명하여 번잡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금강경은 주제가 환연하면서도 한 가지 논점으로 일관되어 있어 불자라면 누구나 한번 제대로 공부해야 하는 경전이다. 즉 가장 일목요연하게 주제가 잘

드러난 경전이 금강경이라는 것이다.

불교의 핵심은 공허사상에 있으며 공사상을 주로 설하는 것은 반야부 경전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금강경은 아공我空, 법공法空, 구공俱空의 삼공三空에 대한 정리가 매우 명쾌하다. 공공이라는 용어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공공에 대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설해하고 있는 경전이 바로 금강경이다. 사상四相을 여윈다는 것으로 공사상의 핵심을 모두 설파해 마친 것이다. 사상四相은 결국 아상我相으로 수렴되며 요즘 같이 아상이 극으로 치달리는 자기 중심적인 말법시대에 가장 필요한 경전은 바로 금강경이다.

금강경은 그야말로 집중된 경전이자 귀일歸一의 경전이다. 하나의 주제로 끊임없이 점입漸進해 들어간다. 하나의 집약된 테마로 심입深入해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수행의 깊이가 그만큼 함께 깊어짐을 의미한다. 그래서 금강경을 계속 독송하면 간경삼매看經三昧로 몰입해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적어도 불자라면 일인일경一人一經을 수지·독송해야 하는데, 하나의 경전을 선택해서 읽고 외우라고 한다면 금강경을 택하라 하셨던 선현들의 가르침엔 이러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불자가 경전을 하나 외우기 전에는 복을 비는 기복불교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 헤거 큰스님의 분석이었다. 경전을 하나 완전히 외우게 되면 신심이 달라지고 불법의 종지를 향해 나아가는 보리심을 진정 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념 없이 외워지는 경전은 없다. 나의 일념一念과 금강경의 일관一貫된 주제가 만날 때 무심삼매無心三昧로 직입해 들어가게 된다. 공공과 무아無我를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공을 체득하고 무아를 증득하는 실질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암송과 강송을 통해 만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종에서 금강경을 중시하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언제부터일까? 선종 초조 달마대사가 2조 혜가 대사에게 법을 전하면서 전해 주었던 경전은 금강경이 아니라 능가경이었다. 이런 전통은 4조 도신선사에게까지 이어져왔으며 5조 홍인교와 6조 혜능시대로 오면서 금강경을 중시하는 전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불자라면

누구나 잘 아는 바와 같이 6조 혜능은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이라는 구절을 우연한 기회에 듣고 마음이 활짝 열렸다고 한다. 오가해五家解에 해설을 남겼을 정도로 육조스님은 금강경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조계’란 단어는 6조 혜능의 상징이다.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의경전이 금강경이 된 것은 육조스님과 금강경의 인연에 힘입은 바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금강경이 단순히 육조스님과의 인연법 하나에 의지하여 선종의 핵심경전이 된 것은 아닐 것이다. 금강경의 핵심은 ‘선사상禪思想’이기도 하다. 이 대목을 이해하면 금강경 이해의 최고 수준에 도달하게 되며 금강경의 향상일로向上一路를 투과透過했다고 할 만하다.

선사禪師들은 금강경의 서분序分인 법회인유분法會因由分에서 이미 모든 법문이 끝났다고 설한다. 그래서 정종분과 유통분은 쓸모없는 사족이라고 했다. 야보송에도 ‘그 뒤의 긴 문장들向下文章은 그저 평지에 파도를 일으킨 것[平地波濤起]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런데 금강경 서분에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부처님의 설법 내용이 없다. 기수급 고독원에서 비구 1250대중과 함께 계시다가 공양 때가 되어서 가사를 수하시고 발우를 들고 사위대상에 들어가셔서 차례로 걸식하시고 처소로 돌아오시어 공양을 마치신 뒤 가사와 발우를 거두시고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는 상황에 대한 설명뿐이다. 도대체 여기에서 무슨 법을 모두 설하셨다는 것인가? 수보리도 수상하다. 부처님께서 그저 자리를 펴고 앉아계셨는데 왜 ‘희유하십니까.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호념하시고 모든 보살들을 잘 부촉하십니까.’라고 했을까? 어느 대목이 호념과 부촉이란 말이며 무엇이 희유하다는 것인가? 야보송에도 ‘여래께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수보리가 문득 찬탄하니 안목을 갖춘 수승한 이들은 시험 삼아 잘 눈여겨볼지이다.’라고 했다. 『선문염송』에서 대혜 종고선사도 ‘부처님은 아직 한 글자도 말하지 않았거늘 수보리는 무슨 도리를 보았기에 선 뜻 희유하다고 하였는가.’라고 했다. 산 너머 연기가 나면 불이 난 줄 알

아야 하며 채찍 그림자만 보아도 훌륭한 말은 이미 내달린다 했다. 이 부분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금강경이 선종인 조계종의 소의경전이 된 이유를 영원히 알 수 없다. 아울러 이 부분을 이해하고자 하면 화엄華嚴과 선禪에 일가견을 갖추어야만 한다.

규봉 종필스님은 자리를 깔고 앉은 ‘부좌이좌敷座而坐’를 ‘바른 선정에 드심[入正定]’이라 하였고 부대사傅大師는 ‘가부좌하여 입선入禪을 보이신 것’이라 하였다. 즉 선정에 들어서 무언설법無言說法을 다해 마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으시고 이미 설법을 다해 마친 것을 의미한다고 도인 스님들은 한 목소리로 해설해 주고 있다.

화엄경은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어서 말없이 광명설법光明說法한 내용이 다. 근기가 수승한 이들은 금강경의 수보리와 같이 단박에 알아들었으나 그렇지 못한 대중들이 있으니 그들을 위해서 문수보살, 보현보살 등의 보살들이 설주說主가 되어 일일이 해설해 준 것이 바로 화엄경이다. 그러므로 화엄경은 부처님은 한 마디도 설하지 않고 설한 바 없이 설한 것이 된다. 금강경이 화엄경과 종지가 같은 것은 이러한 연유이며 선禪의 핵심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연유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할 바도 없다.

대혜선사 말씀처럼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자리를 깔고 선정에 들어앉아 계신 것과 수보리가 그 말없는 도리를 모두 알아차린 것을 홀연히 간파看破한다면 일생의 참학사參學事가 모두 끝이 난다.’ 할 것이다. 진중하게 마음을 다해 정진하여 이 도리를 깨쳐 환지본처還至本處 해야겠다.

금강경은 이와 같이 무상(無相), 무아無我, 공공의 교학적 핵심을 담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외言外의 종지宗旨이자 불립문자不立文字인 선禪의 제일구第一句 도리 역시 오롯이 함께 담고 있다.

금강경을 무수히 독송하여 암송할 뿐 아니라 참선도 함께 병행하여 석가세존의 선정처禪定處를 타파해야 할 의무가 우리 불자들에게 있다. 공부에는 끝이 없다.

왜 금강경인가? 이래서慈愍 금강경인 것이다.

畫心칼럼 표절과 모방, 그리고 전이모사



하풍소하 270x740mm

최근 한국의 대표적인 작가로 손꼽혔던 소설가가 20여년 전에 쓴 단편 소설 일부 문장이 일본작가의 작품을 표절하였다하여 논란이 일었습니다. 뒤늦게나마 작가도 “표절이라는 문제 제기가 맞겠다.”고 인정하여 연일 신문 사회면을 장식하던 논란은 일단 가라앉는 듯합니다. 이로 인해 문학계는 한국 문학 전반에 만연해있는 표절에 대해 성토 일변도에서 자성의 목소리도 함께하는 분위기입니다.

표절이라고 하면 필자와 달리 ‘타인의 저작물을 일부 또는 전부를 출처 표시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바꿔 사용한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업적 목적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므로 지탄의 목소리 또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표절이 단지 문학기행만이 아니라 음악·미술·영화 등 “하늘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말이 당연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남의 글을 인용하는 경우를 표절이라 한다면 남의 그림을 베끼는 경우를 모방했다 합니다. 개그콘서트에서 말하는 도전개전(도긴개긴)으로 볼 수 있겠으나 예술에서는 모방을 창작의 원리로 보고 있습니다. 즉 모방을 새로운 작품을 창조하는 과정으로 상

업적 목적과는 별개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은 자연의 모방이다.”라 했는데 이는 오래전부터 모방을 하나의 창작행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표절과 모방에 대해 영국시인 T. S. 엘리엇은 “미숙한 시인은 흉내 내지만 성숙한 시인은 흡친다.” 하였고 모방의 천재라는 피카소 또한 “유능한 예술가는 모방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흡친다.”고 하였습니다. 표절과 모방을 정당화 하려는 말이 아니라 자신만의 차별화로 승화시키려는 끝없는 노력과 열정이 담긴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양화 화론畫論의 중추이면서 동양회화 발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 최초의 화론서에 『고화품록古畫品錄』이 있습니다. 이는 6세기경 사혁謝赫이 지은 책으로 회화에서 중시해야 할 여섯 가지 점을 육법六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림의 기氣를 보는 사람이 느끼도록 해야 한다는 기운생동氣韻生動부터 대가의 좋은 그림을 모방하여 학습한다는 전이모사轉移模寫 등입니다.

또한 고개지顧愷가 쓴 『논화論畫』에는 ‘대상을 닮게 그려 그 정신을 전달한다’는 전신사조傳神寫照라는 말이 있는데 이러한 화론에서도 모방을 하나의 창작과정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화가들도 중국 대가들의 그림을 모아놓은 <고씨화보>를 비롯해서 <개자원화전> <십죽재 화보> 등을 화본으로 삼아 표현 기법을 익혔습니다.

최근 연화를 좀 더 사실적인 모습으로 그리기 위해 가까운 시흥의 관곡지를 찾았습니다. 수많은 인파에 묻혀 연잎의 잎맥부터 꽃술까지 하나하나 눈에 담고 사진에 담아내기는 쉽지 않았습다. 저녁 늦게 눈에 담은 사진에 이름 모를 새와 나비도 연출시켜 한 점 한 점 그렸습니다. 실물에 가깝게 그리는 것이 개성은 없어 보이거나 그림에 붓 칠을 더 할 때마다 하나라도 버리고 더할 것 없는 자연의 조화로움이 거기에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연의 모방이 예술 활동이며 창작의 원동력 또한 자연의 모방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절로 느껴집니다.

글. 그림 / 김외자(문인화가)

인문학, 책으로 만나다 데미안, 나에게로 이르는 길

“새는 투쟁하며 알에서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그 새는 신에게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Abraxas)다.” 이 문장은 너무도 신비하고 강렬하여 읽는 순간 화살처럼 날카롭게 마음을 파고듭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작가인 헤르만 헤세(1877-1962)의 『데미안』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지요.

『데미안』에는 ‘에밀 싱클레어의 짧은 날의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싱클레어라는 아이가 자신을 감싸고 있던 껍질을 부스며 성장해가는 이야기입니다.

소설은 주인공 싱클레어가 10살 때의 경험을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좋은 집안에서 자란 모범생인 소년은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밝은 세계인 아버지의 집과 어두운 세계인 불량소년들의 뒷골목 사이에서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소년은 자기가 시시한 놈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친구들 앞에서 작은 거짓말을 꾸며냅니다. 그런데 우연히 벨은 작은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도둑질로 이어지면서, 소년은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두려움과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밝고 평화로웠던 세계에 균열이 생기며 유년을 단단히 받치고 있던 기둥에는 깊은 칼자국이 새겨집니다. 행복한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지요.

잘 살펴보면, 우리들의 가슴 한 구석에는 모두 이런 아픈 흔적들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두 세계 사이에서 서성거리면서, 하나의 세계에서 또 다른 세계로 건너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가슴에 깊은 상처를 입고 남모름 아픔을 겪었지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나를 보호해주고 있는 작은 세계에만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알을 깨뜨려야 비로소 새가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싱클레어가 성장하는 순간마다 그를 이끌어주는 이가 바로 데미안입니다. 데미안은 싱클레어보다 2살 정도의 연상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관계를 보면 그냥 단순히 친구가 아니라, 스승이자 인도자의 역할을 합니다.

데미안은 이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는 자로서, 싱클레어의 고통과 고민을 사려 깊게 통찰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문을 열어줍니다. 사실 『데미안』의 등장인물들은 모두 성장 과정의 인도자들입니다. 어두운 바깥 세계로 이

끌어준 불량소년이 있는가 하면, 모순적인 모든 것들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 세상이라는 것을 깨우쳐준 스승도 있습니다. 데미안의 어머니인 에바 부인은 이 모든 것을 통합한 아름다운 인간이자, 깨달은 인간으로서 싱클레어가 다르고 싶은 인간의 본질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헤세는 인간이란 애초에 자연에 의해 내던져진 존재이며, 저마다의 삶을 열심히 걸어 나가서 비로소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끝내 인간이 되지 못하고 개구리나 도마뱀에 머무르기도 하고, 상체만 사람이고 하체는 물고기인 채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재미있는 비유인데, 그만큼 인간이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결국 헤세의 입장에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자신을 가두는 세계에 용기 있게 도전하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변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이 변화는 안락한 현재의 틀을 거부하고, 새롭고 낯선 것을 향해 유연하게 몸을 바꿀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유년의 알을 깨고 나올 때 싱클레어는 무서운 균열을 겪었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균열이 야말로 껍질을 깨트리는 힘이며, 새로운 세상으로 새가 얼굴을 내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신에 이르는 길은 그야말로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균열의 양상도, 상처의 깊이도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것은 우리 모두가 험벗은 채로 자연에 내던져졌고, 그 심연에서 한 발씩 걸어 나와 각자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르는 길을 가고 있다고 스스로를 믿는다면, 지금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균열을 사랑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충격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이 가야, 부서져야, 흔들려야, 빛나는 새의 머리가 새로운 세상으로 고개를 내밀 수 있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아브락사스’는 무엇일까요? 아브락사스는 인간의 영혼이 끊임없이 지향해나가야 하는 미지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찾는 행동을 멈추어버린 순간 아브락사스도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락사스는 더 아름다운 나, 더 나은 나를 열망하게 하는 신비로운 이름인 것입니다.

글 / 한수영(중앙대학교 교양학부대학 교수)

경전법회 안내

수요경전법회 금강경 아보송 매주(수)
금요경전법회 대승기신론 매주(금)
일요가족법회 탄허사상특강 매주(일)
▶ 모든 경전법회는 오전 10시30분입니다.

교육과정 안내

선하불교대학 매주(월) 오전10시 30분
성인기초참선 매주(수) 오후19시 00분
청년불교대학 매주(토) 오후14시 00분
청소년기초참선 7월18일~9월6일 8주(토,일 오후 2시)
어린이명상학교 매주(일) 오전10시 30분
청소년 10분 정중행자과정 5월2일~12월 5일(토)오후2시

문화특강 안내

수요한문반 매주(수) 오후 2시
기초한자반 매주(금) 오후 1시
서예반 매주(월) 오후 2시
합창반 매주(금) 오후 1시
민요반 매주(금) 오후 1시

기도 안내

일년기도, 인등기도, 초하루기도, 초삼일기도
보름기도, 지장재일기도, 백중기도, 신년3일
기도, 신년천도재, 입춘기도, 소원성취기도(수
능백일 및 각종 축원, 21일 소원성취기도, 각
종 백일기도)

제사 안내

49재 / 초재 막재 / 막재
기제사, 명절합동차례(설날, 추석), 천도재

큰스님 동정

7/01(수) 불교신문 인터뷰
7/09(목) 한국명상지도자 협회 회의 (행불선원)
7/13(월) 탄허불교문화재단 임시이사회 회의
(5시30분 금강선원)
7/18(토) 상담개발원 명상지도자팀 간화선 법문1차
(6시30분 금강선원)
7/23(목)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청소년 자문위원회 회의
(2시 포교원)
7/27(월) 탄허불교문화재단 임시이사회 회의
(5시30분 금강선원)
7/30(목) 한국명상지도자 협회 회의 (봉인사)

선원 일정(7.26~8.25)

7/26(일) 일요법회(탄허사상특강 40강)
청소년 참선 심화반
제10기 청소년 명상 프로그램(박물관)
제3기 청소년 명상 지도자과정(박물관)
7/29(수) 수요법회(금강경아보송 18강)
제1차 명사초청 강연회 1차 및 공연(박물관)
7/30(목) 보름기도
7/31(금) 금요법회(대승기신론7강)
8/01(토) 제10기 청소년 명상 템플스테이(보탑사)
8/02(일) 지장재일
일요법회(탄허사상특강 41강)
제10기 청소년 명상 템플스테이(보탑사)
청소년 참선 심화반
8/04(화) 수능 백일기도 입재
8/05(수) 수요법회(금강경아보송 19강)
8/07(금) 금요법회(대승기신론 8강)
8/08(토) 제10기 청소년 명상 프로그램(박물관)
제3기 청소년 명상 지도자과정(박물관)
8/09(일) 일요법회(탄허사상특강 42강)
제10기 청소년 명상 프로그램(박물관)

청소년 참선 심화반
8/12(수) 수요법회(금강경아보송 20강)
8/14(금) 초하루기도
금요법회(대승기신론 9강)
8/15(토) 제10기 청소년 명상 프로그램(박물관)
제3기 청소년 명상 지도자과정(박물관)
8/16(일) 일요법회(탄허사상특강 43강)
제10기 청소년 명상 프로그램(박물관)
청소년 참선 심화반
8/19(수) 수요법회(금강경아보송 21강)
8/20(목) 임제록1,2강(승려연수교육)
8/21(금) 금요법회(대승기신론10강)
8/22(토) 백중 7일기도 입재
제10기 청소년 명상 프로그램(박물관)
제3기 청소년 명상 지도자과정(박물관)
금강경독송집중정진
8/23(일) 백중 7일기도
제10기 청소년 명상 프로그램(박물관)
청소년 참선 심화반
8/24(월) 백중 7일기도
8/25(화) 백중 7일기도

해거스님 강의 TAPE

금강경(육조주석).....35개
금강경(종경주석).....30개
금강경(아보송).....38개
육조단경.....46개
원각경.....33개
유식30송.....32개
일체유심조.....36개
선요.....33개
승만경.....24개
한산시.....16개
법화경약의.....5개
사성제품.....6개

초발심자경문.....11개
태고보우선어록.....15개
능엄경55위.....12개
반야심경.....4개
야마천궁계찬품.....7개
신심명.....8개
심우도.....5개
참나(좌선의).....8개
선가귀감(2013).....25개
서문.....26개
천수경.....12개

해거스님 강의 CD

금강경(육조주석).....35장
금강경(종경주석).....30장
금강경(아보송).....38장
육조단경.....46장
원각경.....33장
유식30송.....32장
일체유심조.....36장
선요.....33장
천수경.....12장
능엄경55위.....12장
반야심경(달마해설).....15장
반야심경.....4장
신심명.....4장
태고어록.....12장
법성계.....5장
서문.....26장
맹자진심장(박완식교수).....45장
영가집 특강 (영가 현각선사의 문집) ... 15장

문의 : 교무팀 02-445-8484

계좌 : 국민 474501-01-011180 금강선원

보시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 시 금 | 천화당한의원 김병원 조남주 최선희 경인자 장우영
보 시 물 | 이은순 40기불교대 동명한의원 최옥부 만수결 능지행(수지선등) 김정순 연심행 박연지 장기팔
대중공양 | 송지선 수연행 유민지 박정화 김애년 안종범 김종영
백중보시 | 각윤월사무실 개포2선등 법성혜 등각명의전팀 남광희 천화당한의원 김학봉
금강경강송대회 보시금 | 법림회 자제회 정성휘 김용범

대방광불화엄경 석경불사

신한은행 100-029-930686 예금주 금강선원
문 의 : 금강선원 불사팀 (02) 445-8484

품 제 목 설 판

도솔천궁중계찬품 - 하재영

구 좌 동 참

1 - 7 3 9 조 민 진
1 - 7 4 0 이 상 명
1 - 7 4 1 하 승 용
1 - 7 4 2 양 여 순
1 - 7 4 3 하 재 민

1 - 7 4 4 김 태 성
1 - 7 4 5 김 미 영
1 - 7 4 6 문 해 주
1 - 7 4 7 이 재 호
1 - 7 4 8 김 지 환
1 - 7 4 9 손 가 영
1 - 7 5 0 이 주 아
1 - 7 5 1 김 윤 찬
1 - 7 5 2 이 혁 순
1-753 40기 불교대학
1 - 7 5 4 임 호 중

1 - 7 5 5 문 미 경
1 - 7 5 6 이 주 형
1 - 7 5 7 김 무 섭
1 - 7 5 8 문 용 속
1 - 7 5 9 엄 소 아
1 - 7 6 0 엄 미 경
1 - 7 6 3 엄 주 영
1 - 7 6 4 신 은 정
1 - 7 6 5 최 형 순
1 - 7 6 6 나 해 리
1 - 7 6 7 최 순 영

1 - 7 6 8 김 남 주
1 - 7 6 9 김 상 현
1 - 7 7 0 이 응 현
1 - 7 7 1 윤 현 속
1 - 7 7 2 이 지 연
1 - 7 7 3 이 규 석
1 - 7 7 4 유 채 아
1 - 7 7 5 조 점 세
1 - 7 7 6 김 창 래
1 - 7 7 7 김 명 속
1 - 7 7 8 김 덕 열

1 - 7 7 9 김 유 열
1 - 7 8 0 목 영 규
1 - 7 8 1 공 정 애
1 - 7 8 2 김 애 년
1 - 7 8 3 김 병 우
1-761 정용교 영가
1-762 정의철 영가



제5회 금강경강송대회 참가 신청서(개인)

NO. 2015 -

성명	한글	주민번호 (앞부분)	반명함판 사진
	한자		
법명	한글	성별	남, 여
	한자		
연락처 핸드폰	-	E.mail	
집주소			
재적사찰			
※ <u>金剛經</u> 을 암송하게 된 동기			
※ <u>金剛經</u> 을 암송한 후의 소감			
참가비 : 3만원 계좌 번호 : 신한은행 100-028-878838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선원			

금강경강송대회에 참가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참가자 (인)

제5회 금강경강송대회 참가 신청서(단체)

NO. 2015 -

단체명	총 인원: (명)	
단체 성격	가족팀 / 도반팀/ 기타 ()	
단체 특징	단체명을 만들게 된 이유, 단체 특징, 단체 자랑거리를 간략하게 적어주세요. 예) 우리 단체는 랩으로 금강경을 독송해요, 가족구성이라 어린이도 있어요 등등	
재적사찰		
이름	참가자 전원의 명단을 적어주세요.	
단체 대표자	단체 대표자 이메일	정해졌을 경우, 적어주시면 됩니다.
단체 참가자	참가 신청서 제출하실때 지정분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자유분
대표자 연락처		
지정분		
단체참가팀 유의사항 : 전체 합송시간 3분 이내 를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참가비 : 3만원 계좌 번호 : 신한은행 100-028-878838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선원		

금강경강송대회에 참가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참가자 (인)

제5회

금강경 강송대회

2015년 10월 17일 (토)
장 소 : 탄허기념박물관

탄허대종사의 눈으로, 좋은 책 『금강경』 읽기 프로그램

국태민안을 발원하던 유구한 민족문화인 경전강송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대한불교조계종의 소의경전인 금강경의 참 뜻을
널리 펼쳐 보살사상 실천과 만일수행결사운동의 보급에 이바지할
금강경 강송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응시자격** 성인 일반부
학생부 : 초, 중, 고등, 대학생 (학생증 첨부)
- 응시부문** 개인전 : 외워 쓰기, 암송
단체전 : 합송 *개인전과 단체전에 중복 응시 가능
수행수기
- 접수기간** 원서접수 : 2015년 7월 1일 ~ 9월 30일 (선착순 접수)
- 지원서** 소정 양식(우편 접수 시 사진 3x4 부착)
※ 지원서 다운로드 : 탄허기념박물관, 금강선원 홈페이지(www.geumgang.org),
금강선원 다음카페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전형료** 개인, 단체 : 3만원 (입금 확인 후 접수 완료)
계좌 번호 : 신한은행 100-028-878838 대한불교조계종금강선원
단, 학생은 무료 (학생증 제출), 수행수기 부분만 무료.
- 접수방법** 1. 방문 및 우편 접수 : 금강선원, 탄허기념박물관
· 금강선원 : 서울 강남구 개포로 82길 11(개포2동 186-3) 삼우빌딩 4층
TEL: 02) 445-8484 / FAX: 02) 445-8034
· 탄허기념박물관 : 서울시 강남구 방고개로 14길 13- 51
TEL: 02) 445-8486 / FAX: 02) 445-8481
2. E-mail 접수 : keumgang-sw@hanmail.net
- 대회상금** 성인 일반부 : 대상 1,000만원
금상 300만원 | 은상 200만원 | 동상 100만원
학생부 : 최우수상 100만원 | 우수상 30만원 | 장려상 20만원
단체전 : 단체상 100만원(3팀)
*각 부문에 특별상 수여.

- 시험 유형 및 출제**
- 개인전** 필기 : 금강경 32분 중 지정분 (당일 공개 추첨) 외워 쓰기
학생부 (초, 중, 고등, 대학생) 지정분 : 1분, 7분, 12분, 17분, 31분
대학생의 경우 성인 일반부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 표준 교재 - 금강선원 발행 『금강경독송집』, 조계종 표준본
강송 : 암송, 운음, 소리 크기
※ 한자 필기시 가산점 부여
결선은 1차 심사 후 질의응답으로 최종 순위 평가
- 단체전** 팀 인원 : 5명 이상
합송 : 지정분(접수시 지정분 배부)과 자유분(팀별 자유선택)
※ 전체 합송시간 : 3분 이내 -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 대회일정** 08:30 입실 완료
8:30~09:00 식전 의전, 필기 분 공개 추첨
1교시(09:00~09:50) <개인전> 외워쓰기
2교시(10:10~12:00) <개인전> 강송(암송)
점심시간 (12:00~13:00)
3교시 (13:00~14:10) <단체전> 단체 합송
4교시 (14:20~15:10) <개인전> 결선
15:20 이후~ 결과발표 및 시상식 / 수행수기 발표 / 순당의례

※ 제세공과금(22%)는 본인부담이며, 대회 사정에 따라 일정 및 상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방이나 원거리 참가자 중 희망하시는 분은 선원에서 숙박하실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 기타 상세한 문의는 금강선원 홈페이지나 대표전화 02)445-8484로 받습니다.

주최 오대산 월정사, BTN 불교TV, 불교신문, 금강선원 주관 탄허불교문화재단, 탄허기념박물관 후원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서울시, BBS불교방송